

종교인구통계 해석과 확증편향 : ‘2015 인구총조사’의 개신교 인구 증가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찬**

目 次

- I. 서론
- II. 종교적 정보 해석과 확증편향
- III. 사례: 2015년 종교인구조사
- IV. 개신교의 상반된 반응
 1. 신중론
 2. 긍정론
- V. 한국 개신교의 다양성과 인지적 특성
- VI. 결론

I. 서론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이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¹⁾ 원하는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만을 찾는 경향을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러 실험을

* 이 논문은 종교학과 학부 졸업 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글입니다.

** 서울대학교 학부(종교학·심리학) 졸업생

1) Peter C. Wason, "On the failure to eliminate hypotheses in a conceptual task,"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2, no. 3 (1960): 138-139.

통해 오랫동안 지지받고 확장되어온 개념이다.²⁾ 특히 종교적 신념이 정보탐색의 동기가 되는 경우에는 확증편향이 더 자주 발생한다. 왜냐하면 종교적 신념은 그 특성상 강력한 인지적 동기로 작용하곤 하는데, 이로 인해 확증편향이 더 빈번하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³⁾ 확증편향이 발견되는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는, 동일한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해석자의 동기가 개입하면서 그것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⁴⁾ 2015년 발표된 종교인구조사와 그에 대한 개신교의 반응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016년 12월 19일에 발표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는 2005년 845만 명에서 2015년 968만 명으로 증가했다.⁵⁾ 10년 동안 123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개신교는 통계 조사상 최초로 한국 내 신자 수 1위를 차지했다. 동기간 불교와 천주교는 신자 수가 하락한 데 비해, 개신교만 신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종교계 내외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개신교는 이 통계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한쪽에서는 자만을 경계해야 하며, 반성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통계 방법과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지난 10년간 신자가 증가했다는 통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통계를 검토한 끝에 이것이 통계상 오류에 의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반면 통계를 낙관적으로 해석하며 긍정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들은 종교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개신교가 최초로 한국 내 신자 수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환영했다. 통계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이 입장은 통계의 세부적 내용을 검토하면서도, 개신교가 한국의 “1대 종교” 라는 점을

2) Joshua Klayman and Young-Won Ha, “Confirmation, Disconfirmation, and Information in Hypothesis Testing,” *Psychological Review* 94, no. 2 (1987): 225.

3) Gordon Pennycook, et al., “Belief Bias during Reasoning among Religious Believers and Skeptics,”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20, no. 4 (2013): 806-11.

4) Charles G. Lord, et al., “Biased Assimil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Prior Theories on Subsequently Considered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no. 11 (1979): 2105-108; Crocker Jennifer, “Biased questions in judgment of covariation stud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no. 2 (1982): 217-219.

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http://census.go.kr/dat/ysr/ysrList.do?q_menu=6&q_sub=3.

언급하고 인정하며 10년간 성장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자축했다.

개신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논쟁을 주로 진보-보수라는 성향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해해 왔다. 통계에 대한 반응이 서로 엇갈린 이 사례에 대해서도 역시 개신교는 그 이유를 진보-보수 간 성향 차이에서 찾았다.⁶⁾ 그러나 동일한 정보에 대한 반응이 상반되었다는 사실은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일종의 인지적 편향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본 사례에서는 통계의 공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개신교 내에서 다양한 반응이 발생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종교인구통계에 대한 개신교의 상반된 반응이 확증편향의 발생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반응이 엇갈린 것은 진보-보수 성향 차이 때문’이라는 기존의 단편적 이해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확증편향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종교적 맥락에서 확증편향을 논의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5년 종교인구통계에 나타난 신자의 증가에 대한 개신교의 상반된 반응을 입장에 따라 나누어 그 특징을 정리한 후, 이를 종교적 확증편향의 한 사례로서 분석해 볼 것이다. 확증편향의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개신교 내 상반된 반응을 설명하고, 이와 진보적·보수적 개신교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하여 한국 개신교 내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인지적 요인을 논의할 것이다.

II. 종교적 정보 해석과 확증편향

확증편향을 연구한 고전적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정보를 무시하는 한편 지지하는 정보는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타당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일지라도, 자기가 조사하고자 하는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취사선택했으며 때로는 거짓이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도 수용했다.⁷⁾ 다음은 확

6) 구교환, 「종교인구조사 결과가 주는 교훈」, 『활천』 763, no. 6 (2017): 12.

7) Thomas Gilovich, *How we know what isn't so*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증편향의 주요 특성들로 여겨지는 것이다.⁸⁾

- 1) 가정이나 신념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간주함
- 2) 신념을 옹호하기 위해 순환 논증 등 비논리적 방식으로 주장을 전개함
- 3) 개인적인 출처를 신뢰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함
- 4) 이미 신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진 출처에서만 확인을 구함
- 5) 기존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새 정보를 해석함
- 6 & 7) 기존의 신념에 반하는 증거를 차단, 무시, 기각하고, 그러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피함
- 8)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 정보를 조작하거나 기존 증거를 왜곡함
- 9) 반대되는 견해와 그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악마화함
- 10) 반론을 피하기 위해 이미 밝힌 신념을 전략적으로 위장함
- 11)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회상함
- 12)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생각을 믿음으로 의식화함

무엇보다 종교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편향과 확증편향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뿐 아니라 사회학, 철학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그중 일부는 실험으로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종교인의 확증편향 혹은 종교 관련 신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확증편향에 관해 연구했다.

페니쿡(G. Pennycook)과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종교인과 회의론자의 전반적인 정보처리과정을 비교했으며, 그 결과 종교인에게 편향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논의했다.⁹⁾ 해당 연구는 종교성과 분석적 성향 간 관계를 보여주는 광범위한 선행연구를 검토했으며, 실험을 통해 종교성이 낮을수록 인지적, 논리적 분석을 더 잘 수행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편향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구

2008), 64-69.

8) Lesly F. Massey, "Confirmation Bias: An American Political, Religious, and Personal Dilemma," *Pennsylvania Literary Journal* 13, no. 1 (2021): 124-125.

9) Gordon Pennycook, et al., "Belief Bias during Reasoning among Religious Believers and Skeptics," 806.

체적인 종교 관련 맥락에서의 연구로는 배드키(W. Badke)의 실험을 살펴볼 수 있다. 신학생의 정보습득과정과 그 출처에 관한 실험을 통해, 연구진은 신학생에게 확장편향이 발생하기 더 쉬우며, 경우에 따라 진위가 불분명한 정보나 가짜 정보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¹⁰⁾ 다음으로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정보의 처리과정을 연구한 유사프와 고벳(O. Yousaf & F. Gobet)은 실험을 통해 개신교 신자에게 발생하는 확장편향을 검증하였다. 십일조에 대해 저마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던 참여자들은 십일조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읽을 수 있었다. 실험 결과 참여자의 신념에 따른 확장편향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진은 개신교인이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편향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¹¹⁾

실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종교와 확장편향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를 찾을 수 있다. 니콜스(R. Nichols)는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 라이트(T. Reid)(1710- 1796)의 사례를 검토하여, 그가 지녔던 기독교적 신념들이 과학적 가설들에 의해 위협받았을 때, 확장편향이 발생하여 그의 철학 체계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¹²⁾ 또한 매시(L. Massey)는 종교적 신념은 그 특성상 확장편향과 편견에 취약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특히 종교적 신념은 삶의 다양한 영역, 가치관, 자기정체성, 주관적 행복 등과 광범위하게 연관되기에 이를 보호하려는 동기가 강하며, 따라서 확장편향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¹³⁾

한편 확장편향의 구체적인 양상을 연구한 로드(C. Lord)와 그의 동료들은 동

10) William Badke, "Fake News, Confirmation Bias, the Search for Truth, and the Theology Student," *Theological Librarianship* 11, no. 2 (2018): 4-7.

11) Omar Yousaf and Fernand Gobet, "The Effect of Personal Attitudes on Information Processing Biases in Religious Individuals," *Journal of Cognitive Psychology* 28, no. 3 (2016): 370-72.

12) Ryan Nichols, "Systematic Cognitive Bias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and Its Cultural Transmission," *Journal of Cognitive Historiography* 5, no. 1-2 (2020): 80-82.

13) Lesly F. Massey, "Confirmation Bias: An American Political, Religious, and Personal Dilemma," 127.

일한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해석자의 동기에 따라 정반대의 주장을 지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¹⁴⁾ 연구진은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를 기준으로 참여자를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지역별 범죄 통계 및 사형제도에 관한 자료를 양쪽 모두에 동일하게 제공했다. 확증편향은 참여자가 각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우선적으로 탐색하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동일한 자료를 자기 입맛에 맞게, 정반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실험은 동일한 정보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2015년 종교인구통계에 대한 개신교의 상반된 반응이 확증편향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III. 사례: 2015년 종교인구조사

통계청은 1985년부터 10년 주기로 인구주택총조사의 하위 항목으로 종교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¹⁵⁾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나, 종교인구는 그 변동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10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네 차례(1985~2015)에 걸쳐 조사되었다.¹⁶⁾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통계청은 그 결과를 2016

14) Charles G. Lord, et al., “Biased Assimil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Prior Theories on Subsequently Considered Evidence,” 2107-108.

15)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인구조사 결과는 한국 종교인구지형에 대한 가장 신뢰성있는 자료로 여겨지며,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이 발간하는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8). 등 각종 공식자료에 인용되고 있다. 이외에 한국의 종교인구에 관한 통계는 여론조사 및 각 교단 내부 통계(자체보고)를 통해서도 산출되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는 한 가지 항목(신자의 수)만 집계하는 대신 표본의 크기가 매우 크다. 한편 여론조사는 종교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 및 신뢰도 등 다른 항목도 조사하기 때문에 통계청의 통계와 상호보완적이다. 다음의 한국갤럽의 조사가 대표적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유광석,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종교문화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신학과 사회』 35, no. 2 (2021): 236-38.

16) 2005년까지 통계청의 종교인구조사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류성민, 「한국 종교인구 분포 비율의 변화와 그 특징」, 『종교연구』 56 (2009): 25-66. 이 대표적이다.

2015년 개신교 신자는 967만 6천여 명으로, 한국 내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10년 전 861만 6천 명보다 약 106만 명 증가한 것이며, 2015년의 조사가 과거의 조사와는 달리 군대나 감옥 등 특수조사지역을 제외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증가폭은 최대 123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종교인구가 340만 명 넘게 감소했기에 더 주목되었으며, 2005년 당시 100만 이상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던 세 주요 종교(불교, 개신교, 천주교) 가운데 유일하게 교세가 확장되었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10만 명 이상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던 5개 종교(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로 그 비교범위를 늘리더라도 마찬가지였다.²⁰⁾

연령별, 지역별 개신교 신자의 분포 등 통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개신교 교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개신교 인구 중 노년층(65세 이상)은 2005년 8.9%에서 2015년 14.3%으로 증가했다. 또한 50대 이상 개신교 신자는 10년 전 대비 67.7%, 60대 이상 개신교인은 80.1% 증가했는데, 이는 총인구의 변화를 뛰어넘는 수치로(총인구 증감율 50대 55.7%, 60대 48.6%), 고령층 신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²¹⁾ 둘째, 0~19세 연령대에서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21.3%, 종교인구 대비 60.1%를 차지하며 타 종교에 비해 젊은 층에서 비교적 강한 교세를 보였다. 셋째, 무종교인이 종교인구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종교인구보다 많아졌다(56.1%).²²⁾

19)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2015, <https://www.census.go.kr/dat/srd/srdList.do?pageIndex=2>.

20)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신자는 2015년 기준 전체 종교인구의 98.3%(2005년 기준 98.1%)를 차지할 정도로, 이른바 “3대 종교”가 한국의 종교인구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3대 종교를 제외하면 신자 수 10만을 넘긴 종교는 없으며, 모두 합했을 때 37만여 명으로 조사되었다(2005년 기준 48만여 명).

21) 장형철, 「2005년과 2015년 인구 총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서 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인구 변동의 특징 - 연령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2, no. 1 (2018): 181-219.

22) 무종교인은 개신교에만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종교인의 증가 역시 개신교의 위기로 해석하여 더 적극적인 포교를 요청하는 식으로 반응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우리나라 전도 황금어장은 바로 여기」, 『국민일보』

한편 2005년 당시 불교 신자는 107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불교 신자 수는 10년 전에 비해 310만여 명이 감소하여 762만여 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으며, 통계 해석방안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보였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통계 발표 직후, 조사 방식이 특정 종교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기도 했다.²³⁾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불교계는 당시 체감하던 교인 감소의 위기가 통계 지표로 명백히 드러났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포교 전략에 대해 반성하거나, 그동안 이어졌던 각종 추문 및 경직된 교단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해당 시기 『불교신문』의 논조 변화가 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발간하는 『불교신문』은 통계 발표 당일, 통계 방식과 조사에 대한 불신, 불교계 폐단 등을 과잉 보도해온 언론과 단체들을 비판했다.²⁴⁾ 그러나 약 2주 후 『불교신문』은 논조를 바꾸어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을 연이어 게시했다. 요컨대 불교계는 통계 발표 직후에는 충격을 받아 당황했으나, 그간 체감하던 신자 수 추이와 일치하는 통계였다는 점에서 큰 논쟁 없이 자기반성의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보였다.²⁵⁾

2016.12.27.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_cid=0011161203.

- 23) 「종교계, 종교인구 변화에 의아·충격·고심」, 『한국일보』 2017.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1081334251057>.
- 24) 「유독 개신교만 대폭 증가?」, 『불교신문』 2016.12.2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85>; 「신뢰, 호감도 제일 낮는데… 개신교도 놀라」, 『불교신문』 2016.12.2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91>; 「불교계 “조사방식 신뢰 어렵다”」, 『불교신문』 2016.12.2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86>; 「인구주택총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불교신문』 2016.12.2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93>.
- 25) 불교신문의 바뀐 논조에 대한 반응은 「남탓하던 ‘불교신문’ 논조 바뀌」, 『불교닷컴』 2017.1.5.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88>; 「불자 감소… ‘조각각하’할 때다」, 『불교신문』 2017.1.3.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426>; 「종교 설자리 더 이상 없나… “위기를 기회로”」, 『불교신문』 2017.1.5.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498>; 「타종교 교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교」, 『불교신문』 2017.1.4.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498>.

한편 천주교는 2005년 501만여 명의 신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389만여 명으로, 10년간 110만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의 자체 통계에 비해 통계청이 추산한 신도 수가 상당히 적게 나왔음에도 천주교는 그 차이를 해석하는 것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BCK)의 통계를 통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자체 통계를 꾸준히 산출하여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⁶⁾ 천주교는 신자 수, 본당 수, 주교 및 신부의 수는 물론, 성사 현황, 교육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등을 매년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발표해 왔다. 예컨대 영세 받은 신자 수와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 수의 차이와 같이, 천주교는 자체 통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년 통계가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고 따라서 이를 존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²⁷⁾

오히려 천주교는 교단 내 통계를 바탕으로, 2005년의 통계 결과가 오류였을 가능성에 다시 주목하기도 했다. 1985년, 1995년 조사에서는 천주교에서 파악한 신자 수가 통계청 집계보다 50만여 명씩 많았고, 2015년에는 176만 명가량 많았다.²⁸⁾ 그러나 유독 2005년 조사에서는 통계청의 신자 수가 자체 통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그 당시에도 통계청이 천주교 신자 수를 실제보다 많이 집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²⁹⁾ 천주교는 2015년 통계에 대해서 아쉬움

w.html?idxno=154434.

- 26)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5」, <https://cbck.or.kr/Board/K7200>.
- 27)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발표…」, 『가톨릭평화신문』 2017.1.1. https://news.catholic.or.kr/WZ_NP/section/view.asp?tbcode=SEC01&cseq=2&seq=135147;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집계 결과분석 (1~6)」, 『가톨릭평화신문』 2016.12.26.~2.24.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serial_code=SRN187; 「가톨릭 신자 감소, 이제라도 답 찾아야」, 『가톨릭평화신문』 2017.1.4. https://news.catholic.or.kr/WZ_NP/section/view.asp?tbcode=SEC05&cseq=2&seq=135303.
- 28) 「가톨릭 교세폭발의 비밀」, 『월간조선』 2006.7.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607100010>.
- 29) 천주교는 2005년 당시 교적자료 정리 과정 상 중복, 선택지 착각 등으로 인해 통계상 오류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천주교회의 보다 정확한 기초 통계 산출을 위한 제언」, 『가톨릭신문』 2006.7.2.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156004&acid=1;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와 천주교 교세」, 『가톨릭

을 표하면서도 신자 수가 급락한 것이 아니라 2005년의 통계가 오류였으며, 단지 성장세가 정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IV. 개신교의 상반된 반응

그러나 개신교가 통계를 받아본 상황은 다소 독특했기에 그 해석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는 개신교의 각 교단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교세의 추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앞서 살펴봤듯, 불교와 천주교는 내부의 체감 혹은 통계와 일맥상통하는 통계 결과를 확인했기에 비교적 큰 논쟁 없이 신자 수 통계에 대한 해석이 한 쪽 방향으로 모일 수 있었다. 반면 개신교는 내부에서 신자 수 하락을 체감하고 있었으나, 통계는 신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개신교의 반응은 시간이 지나며 한쪽으로 수렴되기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2016년 12월 19일 통계가 공개된 이후 논문,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드러난 개신교의 반응들은 통계에 대한 태도에 따라 크게 신중론과 긍정론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⁰⁾

1. 신중론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보였음에도, 발표 직후부터 개신교 내부에서는 통계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자 수 증가를 역면 그대

신문』 2017.1.13.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76487&acid=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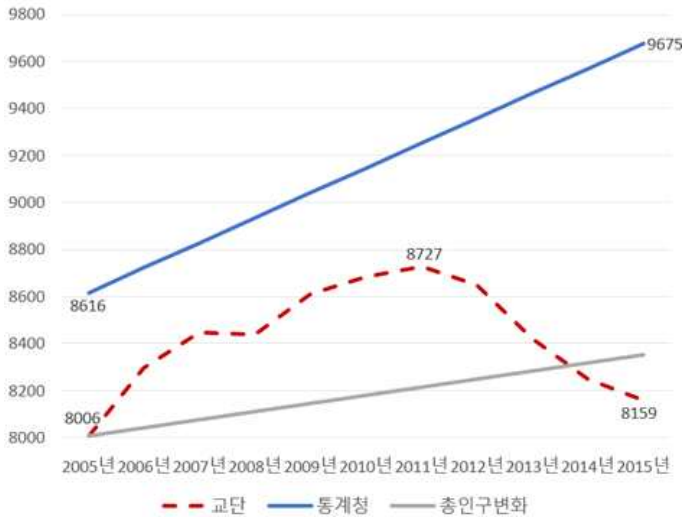
30)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신문 기사, 칼럼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집하였다. 1) 칼럼: 통계 발표로부터 주로 6개월간(2017년 5월까지) 국민일보와 뉴스앤조이(각각 보수, 진보적 교계신문을 대표함)에 기고된 글 중 통계에 관한 것이나, 통계 자료를 언급한 글. 2) 기사: 통계 발표로부터 6개월간 국내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기사 중 개신교 단체나 인사의 인터뷰나 반응이 포함된 기사. 편의상 논문에서는 이를 ‘개신교의 반응’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개신교 교단 및 교회의 지도부나 주요 인사들의 반응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이들은 통계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다른 증거를 탐색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신중론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통계청의 통계가 교단 내 통계와 불일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중론은 개신교가 그동안 체감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통계가 나왔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주요 개신교 교단들은 총회 보고서를 통해 신자 수와 교회 수를 매년 정리한다. 종교인구 통계의 작성 시점인 2005년과 2015년 교단 내 통계에 나타난 신자 수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³¹⁾ 신자 수가 많은 7개의 주요 교단(예장합동, 예장통합, 감리, 고신, 기장, 예장합신, 기성)은 모두 2005년부터 10년간 일정 기간 신자 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고 집계했다.³²⁾ 각 교단의 신자 수를 합산하여 보면, 개신교는 대략 2005년 801만 명에서 2011년 873만 명에 이르기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 816만 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교단 내 통계로 보더라도 이는 10년간 약 19만 명 정도 증가한 것이지만, 같은 시기 총인구가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신자 수는 감소한 셈이었다.³³⁾ 요컨대 수치적으로도, 체감상으로도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는 예

-
- 31) 교단 내 통계를 수집하는 교단의 경우 대부분 총회 보고서를 통해 신자 수를 집계한다. 개신교 교단 내 자체통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개신교를 아우르는 일원화된 통계 수집 방법이 없어서 교단이 자체적으로 보고하거나,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 총연합(한교총)등을 거쳐 통계가 수합된다. 2) 교회 수, 교직자 수, 신자 수를 의도나 실정에 따라 과장하거나 어렵하여 보고하는 경우, 응답에 소극적이거나 일부만 응답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예컨대 대표적인 독립교단 연합체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KAIKAM) 등 교단 내부 통계를 공개하지도, 문체부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교단도 2017년 기준 248개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8).
- 32)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의 경우, 교인과 세례교인을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교단 내 통계가 인용될 때마다 둘 중 사용되는 수치가 다르다. 본고에서는 세례교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기성을 제외하고 6개 교단으로 합산시에도 양상은 동일했는데, 2005년 770만 명에서 2011년 836만 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15년 784만 명으로 하락하였다; 「2017 성결교회 성장 기상도 ‘맑은 뒤 흐림」, 『한국성결신문』 2017.5.25. <http://www.keh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59>.
- 33) 「교인 17만 명 감소, 13만이 예장합동」, 『뉴스앤조이』 2015.12.31. <https://www.newsny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96>; 「주요 6개 교단, 올해만 교인 40만 명 줄었다 … 10년 전 정점 찍은 후 176만명 빠져」, 『뉴스앤조이』 2021.10.7. <https://www.newsny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479>; 오덕교,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상치 못한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통계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다.

이러한 통계 간 불일치는 통계청의 수치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졌고, 이에 신중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청의 통계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시도했다. 신중론이 지적한 통계상 문제와 그 비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³⁴⁾



[그림 2] 주요 7개교단의 교세 통계와 동기간 통계청 통계³⁵⁾ (단위:천 명)

1) 2005년에는 통계청이 전수조사를 했으나, 2015년에는 20% 표본조사로 진행했다. 이 때문에 가중치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큰 오차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설령 표본조사라 하더라도 그 표본 수가 총인구의 20%

한국교회의 성장요인 진중세례를 중심으로, 『군선교 청년』 17 (2018): 63.

34) 임영빈, 「개신교 인구 증가, 어떻게 봐야 할까」, 『뉴스앤조이』 2016.12.26.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32>; 목회사회학연구소, 「잃어버린 개신교인 200만을 찾아서」, 『뉴스앤조이』 2016.12.26.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86>.

35) 총인구변화는 2005년 개신교 신자의 순유입이나 순유출이 없다고 가정한 뒤 총인구의 변화율만 단순 반영한 결과를 대략 나타낸 것이다.

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고, 정부기관이 진행한 국가통계라는 점에서 신중론은 이에 대한 비판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³⁶⁾

2) 2005년까지는 대면으로만 조사했으나, 2015년에는 49%의 응답을 온라인으로 수집했다. 대면과 온라인이라는 두 가지 조사 방법이 모두 개신교인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대면조사는 일과 시간에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년층 이상의 여성이 비교적 많이 응답하게 되는데, 개신교는 40대 이상, 여성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조사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조사를 다른 가구원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온라인 조사에서는 저연령-고학력 응답자가 많았는데, 개신교는 신자 중 고학력자(대학 재학 이상)의 비중이 50%를 넘는 유일한 종교(52.3%)이자 30대 이하 종교인구에서 큰 교세를 보이는 종교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많이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³⁷⁾

3) 조사지침을 고려하면, 종교개념이 개인의 주관적 종교성을 강조하였기에 개신교에게 유리한 면이 있었다. 종교항목의 질문은 “종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종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지침에 따르면 “종교가 있는 사람”은 입교 의식을 행한 사람 및 정기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믿음을 가지고 종교사상을 실천하는 사람”도 포함했다. 따라서 통계청 조사가 사용한 종교 개념은 개인의 신념과 같은 주관적 종교성을 더 근본적으로 고려하는 듯 보인다.³⁸⁾ 개신교의 이른바 “가나안 신자” 즉 세례 받은 뒤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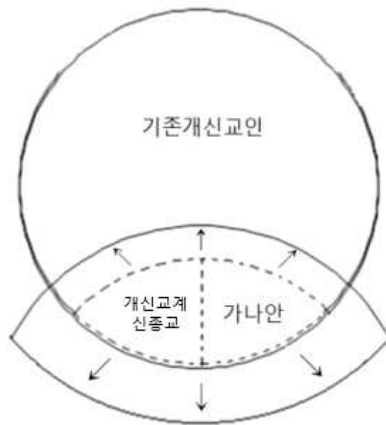
36) 임영빈, 「개신교 인구 증가, 어떻게 봐야 할까」, 『뉴스앤조이』 2016.12.26.

37) 지용근, 「종교 인구 조사 결과, 신뢰할 만한가?」, 『[특별포럼]개신교는 과연 약진했는가』 (2017): 12-13. 다음의 주소에서 포럼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http://tamgoo.kr/board/bbs/board.php?bo_table=b_resources_3_1&wr_id=10&sfl=wr_1&stx=%EB%B3%80%EC%83%81%EC%9A%B1&sop=and&wr_1.

38) 유광석,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종교문항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242-3.

데, 이들은 개신교 교회에서는 신자로 집계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해당 종교의 신자로 통계에 응답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³⁹⁾

4) 개신교계 신종교들이 개신교 신자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의 수가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 조사지침서에 따르면 물문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안식교 등은 모두 기독교(개신교)로 응답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통계에 나타난 신자 수가 실제 신자들보다 과다 집계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⁴⁰⁾



[그림 3] 3)과 4)에서 논의한 개신교인 증가 요인의 개념도⁴¹⁾

- 39) 「10년간 개신교인 100만 증가, 교회 부흥일까?」, 『뉴스앤조이』 2016.12.19.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43>; 정재영,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종교 인구 변동의 의미」, 『특별포럼]개신교는 과연 약진했는가』 (2017): 17-22; 양희송, 「“샤이 개신교”와 “강한 정체성”의 딜레마」, 『특별포럼]개신교는 과연 약진했는가』 (2017): 28.
- 40) 개신교계 신종교 중 하나님의 교회(안상홍),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른바 “신천지”), 이른바 “구원파” 교단들(기독교복음침례회 등), 통일교(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등은 모두 합하여 2015년 기준 총 100만 명 이상의 신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옥성삼, 「종교 통계에 감춰진 메시지」, 『국민일보』 2016.12.30.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9307>.
- 41) 지용근, 「종교 인구 조사 결과, 신뢰할 만한가?」, 12-13.

이외에도 총인구 성장치를 감안하면 통계청의 통계는 사실상 감소하는 것이라는 해석,⁴²⁾ 선택지의 표현으로 인한 오차 및 순서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했다.⁴³⁾

2. 긍정론

한편, 신자 수의 급증으로 이른바 “1위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통계를 긍정하는 반응도 있었다. 신중론과 비교하였을 때, 이들 긍정론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1) 통계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2) 청년층, 고령층, 무종교층 등 통계의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통계 방법론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설령 통계적 비판사항을 언급하더라도 이를 옹호하는 다른 사실을 함께 제시하며 통계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3) 통계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맥락, 즉 신앙적·고백적 주제의 글에서 통계를 단편적으로 언급했다.

1) 통계 발표 직후, “대한민국 “제1의 종교” 된 개신교 … 10년간 120명 이상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처럼 『국민일보』에는 통계를 긍정하고, 10년간 개신교 교회가 해온 노력을 인정하고 치하하는 논조의 글이 연이어 실렸다. 개신교의 종교적 열성이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⁴⁴⁾ 개신교가 지속적으로 새 신자를 전도해 온 점⁴⁵⁾, 상처받은 감정을 위로하는 힐링이나 코칭

42) 임영빈, 「개신교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2017.1.2. <https://www.newsngo.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19>.

43) 개신교라는 명칭이 기독교보다 익숙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는 최현중, 「종교 인구에 대한 센서스 결과 분석」, 『신학과 실천』 24, no. 2 (2010): 374-5 참조. 순서효과로 인한 오차 가능성에 관하여는 「개신교 1위는 문항지 오류 바로잡은 결과」, 『국민일보』 2016.12.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3407> 참조.

44) 「대한민국 ‘제1의 종교’ 된 개신교…10년간 120만명 이상 증가」, 『국민일보』 2016.12.19.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45071>; 「‘국내 1대 종교’ 된 개신교, 힐링 코칭 프로그램 통했다」, 『국민일보』 2017.1.25.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5221>.

45) 「종교인구 조사 3대 쟁점」, 『국민일보』 2016.12.2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4349>; 「기독교교선교聯 성명 "123만 신자 증가 한국교회 군선교 사

을 제공한 점⁴⁶⁾ 등이 신자 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긍정론은 통계를 “한국 (개신교) 교회가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데이터” 이자, “사회가 절망적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개신교) 신앙을 찾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통계치” 라 평가했으며,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⁴⁷⁾

2) 다만 일부 긍정론 중에는 전체적인 논지가 밝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통계의 세부적 항목에 주목하며, 신자의 고령화를 경고하거나,⁴⁸⁾ 30대 이하 청년층과 무종교층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⁴⁹⁾ 이들은 비판적인 논조라는 점에서 일견 신중론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통계의 방법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오류 가능성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통계는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한 채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신중론과는 달랐다. 더 나아가 “1위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에는 그만한 책임과 과제가 뒤따르며, 이와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⁵⁰⁾

무엇보다 긍정론은 신중론의 의심에 직접 반응하여 통계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거나, 통계의 신뢰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도 했다. 이들은 통계의 신빙성에 의문을 던지는 개신교계 인사들이 일종의 “탈진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통계 방법론을 지지하며 오류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긍정론은 여론조사와 다른 자료들을 인용하기도 했다.

역의 결실’, 『국민일보』 2017.3.4.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06366>.

46) 「‘국내 1대 종교’ 된 개신교, 힐링 코칭 프로그램 통했다, 『국민일보』.

47) 「대한민국 ‘제1의 종교’ 된 개신교…10년간 120만명 이상 증가, 『국민일보』.

48) 지용근, 「개신교, 리더 종교의 시대를 맞으며」, 9-10; 조종환, 「한국교회, 인구절벽에 맞닥뜨리다, 『활천』 763, no. 6 (2017): 44-48; 「[2016 한국교회 10대 뉴스] (1) 국민 5명 중 1명 개신교인… 다음세대 부흥은 과제로, 『국민일보』 2016.12.30.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9334>.

49) 신상목, 「성육신 VS 탈육신, 『국민일보』 2016.12.23.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5639>; 「교인절벽 맞기 전에, 교회, 영적 목마름에 답해야, 『국민일보』 2016.12.20.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3481>.

50) 임성빈, 「종교인구 통계, 그 의미와 도전, 『국민일보』 2017.6.8.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62052>.

통계청의 종교인구 발표 이후 문득 이 단어가 떠올랐다. ‘그럴 리가 없는 데...’ 일반인이나 크리스천,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서도 통계청 발표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이면에는 ‘개신교가 지금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교인 증가가 말이 되느냐’ 같은 불편한 감정이 엿보인다. ‘이 결과가 정말 맞을까’하는 물음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 이 같은 상황이 10년 만에 뒤집혔으니 ‘대략난감’일 수밖에. 일부 학자들은 조만간 이번 통계치를 놓고 ‘개신교는 과연 약진했는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까지 준비 중이다.⁵¹⁾

일각에서는 2005년에는 종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수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통계치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⁵²⁾

통계기법이 발전하면서 1000명의 표본 조사로도 사회적 추세를 읽는 데 지장 없는 수준이 됐다. 이번처럼 1000만명 이상을 조사했을 경우 오차율은 ± 0.03 (신뢰수준 95%)이다. 그런데도 표본조사라서 신뢰성이 낮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⁵³⁾

이러한 결과는 매우 다양한 반응과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표본 규모면에서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청 발표이기에 이러한 주장들은 그리 포괄적인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다.⁵⁴⁾

사실 종교적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통계는 따로 있다. 구름잡는 식의 전체 신도수가 아니라 바로 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직자수

51) 박재찬, 「세밀, 종로 5가에서」, 『국민일보』 2016.12.30.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9833>.

52) 「종교인구 통계조사 어떻게... 응답률 낮은 전수조사 대신 신뢰도 높은 표본조사」, 『국민일보』 2016.12.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2859>.

53) 「종교인구 조사 3대 쟁점」, 『국민일보』.

54) 임성빈, 「종교인구 통계, 그 의미와 도전」, 『국민일보』.

이다. (중략) 또 한가지 유의해서 보는 통계는 온라인 포털에서 활동중인 종교 별 카페의 개수다. (중략) 따라서 이번 2015년 인구센서스 조사로 나온 종교인 수의 순위 개신교-불교-천주교는 이전의 통계적 왜곡을 넘어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결과라 할 수 있겠다. 55)

3) 마지막으로 통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다른 글에서 통계가 인용되기도 했다. 교인들의 자부심이나 책임 의식을 불러일으키고자 “1위 종교” 라는 사실이 단편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⁵⁶⁾ 이들은 주로 통계를 단편적으로 인용하며, 그 결과를 피상적인 수준에서 해석하여 글의 주제를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했다.⁵⁷⁾

개신교의 상반된 반응을 종합해 보면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 사례들을 신문사에 따라 다시 정리해 보면 신중론의 입장은 진보적 개신교 언론인 『뉴스앤조이』와 보수적 개신교 언론인 『국민일보』 양쪽 모두에서 비교적 고루 드러났으나, 『뉴스앤조이』는 단순 보도자료 한 건을 제외하면 전부 신중론의 입장을 실었다.⁵⁸⁾ 반면 긍정론은 사실상 『국민일보』에서만 드러났다.⁵⁹⁾ 정리하자면 『뉴스앤조이』는 사실상 신중론의 입장만을 보도했

55) 이길용, 「세속화 시대의 한국교회」, 『활천』 763, no. 6 (2017): 36.

56) 소강석, 「페스트 팔로어를 넘어 퍼스트 무버로」, 『국민일보』 2017.1.10.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6009>.

57) 「한국교회 사상 첫 단일 연합기구 … 장로교·감리교·성결교·순복음·침례교 + 진보·보수 손잡아」, 『국민일보』 2016.12.29. <https://news.kmib.co.kr/view.asp?arcid=0923668479>; 「한목협 “명실상부한 교회연합기구 출범해야”」, 『국민일보』 2017.1.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72681>; 김재훈, 「기독교인이 담당해야 나라가 삽니다」, 『국민일보』 2019.6.4.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69137>.

58) 주 31에서 밝힌 기준대로 해당 사례를 수집한 결과, 『뉴스앤조이』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9건의 관련 글을 실었으며, 그 중 8건은 통계의 오류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신중론의 입장이었다. 본고에서는 그 중 7건을 인용하였다. 한국기독교교군선교연합회의 긍정론적 입장은 『뉴스앤조이』가 보도한 유일한 긍정론의 입장이었다. 「군선교연합회 "개신교 1대 종교 등극, 군 선교 결실 확신"」, 『뉴스앤조이』 2017.2.23.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02>.

59) 『국민일보』의 경우 22건의 관련 글을 실었으며, 그 중 과반인 13건이 긍정론적 입장이었다.

으며, 긍정론의 입장은 사실상 『국민일보』를 통해서만 보도되었다. 이는 신중론과 긍정론이 각각 진보적·보수적 개신교의 입장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교단 내 통계자료는 두 반응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정보였다. 신중론과 긍정론은 모두 주로 개신교 교단 및 교회의 목사나 주요 인사들에게서 나타났기에 긍정론자들이 교단 내 신자의 추세를 모른 채, 통계청의 정보만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 일부 긍정론은 신중론의 입장을 직접 언급하며 그와 논쟁하기도 했으므로, 교단 내 통계와의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제공된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신중론의 반응과 그 반응을 일으킨 통계 간의 차이는 긍정론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라 볼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이들은 정보처리과정에서 반대되는 정보를 무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V. 한국 개신교의 다양성과 인지적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개신교의 반응은 종교 관련 정보에 대한 종교인의 정보처리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상기한 확증편향에 관한 연구들의 논의를 반영하는 일종의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긍정론은 앞서 정리한 확증편향의 특징 중 다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명확한 특징은 통계청 정보를 사실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정보를 취사선택했다는 점이다. 긍정론은 통계와 상반되는 교단 내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를 인정하더라도 그 의미를 축소하였다. 또한 긍정론은 때로 종종 통계의 세부 항목에 집중하였으나, 종교인구통계 전체에 대한 신빙성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해당 항목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되, 개신교 신자 증가라는 통계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묘한 논조의 긍정론은 ‘통계는 참’이라는 전제를 숨기고, 논의의 대상을 좁게 잡는 일종의 위장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부 긍정론은

통계의 신빙성에 의문을 던지는 신중론을 비난하기도 했으며, 이를 위해 사례와 무관하거나 심지어 비논리적인 증거를 동원하면서 통계의 신빙성을 옹호하기도 했다.⁶⁰⁾

오늘날 개신교와 연관된 사회 이슈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입장이 하나로 통일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윤리의 문제이거나 정치 이념과 관련된 문제라면 개신교 내부의 반응은 더 극명히 갈린다. 종교다원론, 종교인과세, 동성애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개신교는 내적으로 상이한 입장 사이 끊임없는 논쟁을 겪어오고 있다.⁶¹⁾ 개신교는 내부의 논쟁을 보통 신학적·정치적 관점으로 이해해 왔다. 한국 개신교의 내적 다양성은 신학적·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른바 “진보적 개신교와 보수적 개신교” 라는 이름 아래에서 해석되기 마련이다.⁶²⁾

개신교계는 종교인구 통계에 대한 반응의 불일치 역시 진보·보수의 성향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⁶³⁾ 특히 보수적 개신교 언론인 『국민일보』와 진보적 개신교 언론인 『뉴스앤조이』를 중심으로 긍정론과 신중론의 시

- 60) 혹자는 신중론 역시 (통계가 틀렸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반대 방향의 확증편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신중론은 통계학, 사회학 등 인접 학문의 방법론을 동원하는 등 비교적 합리적·비편적 관점에서 통계의 신빙성을 검증하였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확증편향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그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Rudiger Pohl, *Cognitive Illusions: A Handbook on Fallacies and Biases in Thinking, Judgement and Memory*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2), 94; Ahlam Lee, “Confirmation Bias and Irrational Decision-Making: Implications for HRD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South Korea*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20): 235. 또한 신중론은 반대되는 정보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확증편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 61) 종교인 과세에 대한 개신교 내 논쟁은 서헌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니이까?」, 『교회와 법』 3, no. 1 (2016): 8 참조. 종교다원론에 대하여는 박승길, 「한국 신종교 지형과 종교문화」, 『한국종교』 38 (2015): 95-131; 김경재, 「한국교회의 종교다원론 논쟁」, 『신학과교회』 10, no. 1 (2018): 147-81 참조. 동성애 대하여는 최성훈, 「동성애에 대한 실천신학적 접근」, 『신학과 실천』 78 (2022): 763-86 참조.
- 62) 특히 정치적 우파, 보수적 신학을 특징으로 하는 ‘개신교 우파’, 정치적 좌파, 자유주의적 신학을 특징으로 하는 ‘개신교 좌파’에 대한 이해가 대표적이다. 김성건, 「기독교와 정치 -미국과 한국의 복음주의를 중심으로」, 『담론201』 15, no. 2 (2012): 109-33.
- 63) 이길용, 「세속화 시대의 한국교회」, 36.

각 차이가 크게 두드러졌으며, 이는 개신교 내부에서도 직접 언급될 정도로 자명한 사실이었다.⁶⁴⁾ 앞서 양측의 반응을 정리해 본 결과, 긍정론은 사실상 『국민일보』에서만 드러난 반면, 『뉴스앤조이』는 거의 신중론만을 보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⁵⁾ 이는 통계에 대한 긍정론과 신중론의 차이를 개신교 내 진보·보수의 성향 차이로 이해한 개신교 내의 시각을 뒷받침한다.

본 사건은 동시에 공개된 동일한 정보가 서로 상반된 반응으로 갈라지는 것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한국 개신교의 진보·보수 간 성향차이로만 여겨졌던 내적 다양성을 인지적 관점에서 조망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기에 이 사례에서처럼 진보·보수 개신교 사이 정보 처리 양상의 차이를 읽어낸다면, 개신교 내 성향 차이를 강화하는 인지적 요인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의 이념 스펙트럼은 그동안 근본적으로 신학적·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어왔으나 그 이념의 차이가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과정은 반드시 정보처리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므로, 개신교 내의 성향차는 확증편향 등 정보처리과정의 차이에 의해서 매개될 수밖에 없다. 만약 성향에 따라 확증편향을 비롯한 더 많은 인지적 특징들이 관찰된다면, 개신교의 성향적 다양성을 해석할 때 인지적 관점의 해석이 본격적으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소셜 미디어가 보편화되며 불거진 가짜뉴스 문제는 확증편향과 개신교 내 성향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함께 논의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일 것이다. 가짜뉴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보처리과정의 건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보들은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취사선택되어 극단주의적 메시지나 혐오 발언으로 변모하고, 종교적 신념으로 쉽게 포장되며, 뉴스나 기도 제목의 형식으로 위장된다. 개신교는 자주 정치적 가짜뉴스의 주요 생산자이자 소비자라 지목된다. 일부 신자들은 사회 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개인적 신념을 ‘기도 제목’ 등 종교적 신념으로 포장하고 동기화하여, 가짜 정보를 생산

64) 구교환, 「종교인구조사 결과가 주는 교훈」, 12.

65) 뉴스앤조이의 신중론은 다음 기사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개신교 ‘종교1위’에 현혹되지 마라」, 『뉴스앤조이』 2017.1.5.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45>; 「개신교 인구 ‘967만’이 당황스럽다」, 『뉴스앤조이』 2017.2.7.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19>.

하고 공유하며 소비한다.⁶⁶⁾ 종교적 신념은 그 특성상 동기화된 확장편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동기로 작용하기 쉬우며, 실제로 가짜뉴스의 양상은 앞서 살펴본 확장편향의 주요 특성들을 대부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개신교의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몇몇 논의를 살펴보면 가짜뉴스의 문제가 개신교의 진보·보수적 성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보적 개신교는 보수적 개신교가 정치적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생산·유포한다고 비판한다.⁶⁷⁾ 반면 보수적 개신교는 오히려 진보적 언론의 가짜뉴스에 의하여 자신들이 부당한 공격을 받는다고 본다.⁶⁸⁾ 본고에서 살펴본 종교인구통계에 대한 반응처럼, 만일 가짜뉴스의 문제가 개신교 내 성향 차이와 연관되어 나타난다면 개신교의 내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인지적 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2015년의 종교인구통계는 발표되자마자 한국 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개신교의 반응은 한쪽으로 수렴되기보다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타났다. 어떤 이들은 통계가 사실이라고 보고 환영했으며, 다른 이들은 그 결과가 오류라고 비판했다. 개신교 내에서는 진보·보수 성향의 차이로 인해 통계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 것으로 파악해 왔다.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통계를 더 적극적으로 공

66) 권혁률, 「가짜뉴스와 기독교」, 『새가정』 65, no. 1 (2018): 92-93.

67) 이지성, 「혐오의 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 - 극우 개신교의 종북계가 혐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2 (2018): 211-240;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가짜뉴스와 기독교 공동포럼』 (2018); 「민주당 "일부 교회 중심으로 가짜뉴스 유포"」, 『뉴스앤조이』 201 8.3.5.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04>.

68) 백상현, 「가짜뉴스, 혐오표현, 종교편향 논리로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성결교회와 신학』 40 (2018): 133-142; 지영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가짜뉴스 - 2020.6.29.자 jtbc 팩트체크와 양심적 혐오표현권」 『교회와 법』 7, no. 2 (2021): 169-225.

정하는 한편, 진보적일수록 통계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인지적 관점에서 정보처리과정에 집중하여, 긍정론에서는 반대되는 정보를 무시하는 등 확증편향의 주요 특징들이 관찰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두 입장이 성향이 서로 다른 개신교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확증편향의 발생 여부가 개신교 내 진보·보수의 성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일 수 있다고 보았다. 확증편향뿐 아니라 다른 인지적 특징이 양자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면, 개신교 내 논쟁의 성격을 보다 다층적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 등에 나타난 반응을 수집한 본 연구에서는 확증편향이 개신교 내의 성향 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겹쳐 드러난다는 점을 논의했으나, 양자간 본격적인 상관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더 잘 통제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실험 연구 그리고 다른 사례들에 대한 조사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확증편향은 휴리스틱(Heuristics) 등 다른 인지적 기제들과 마찬가지로 정보처리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돕는다. 그러나 확증편향은 기존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게 하고 비합리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하지 않은 논리와 의사결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보처리과정에서 확증편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맥락과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 사례를 돌아볼 때, 주로 특정 성향에게서 확증편향으로 인한 통계 긍정론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인구통계보다 더 오류가 많은 정보들 혹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정보에 대해서도 같은 편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보수의 성향을 막론하고 개신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논쟁을 위해 내부에 존재하지 모르는 확증편향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종교인구통계, 한국 개신교, 보수 개신교, 진보 개신교, 확증편향, 정보처리이론

투 고 일: 2022. 11. 04.

심사종료일: 2022. 11. 23.

게재확정일: 2022. 11. 28.

참고문헌

- 구교환. 「종교인구조사 결과가 주는 교훈」. 『활천』 763, no. 6 (2017): 12.
- 권혁률. 「가짜뉴스와 기독교」. 『새가정』 65, no. 1 (2018): 92-93.
- 김경재. 「한국교회의 종교다원론 논쟁」. 『신학과교회』 10, no. 1 (2018): 147-81.
- 김성건. 「기독교와 정치 -미국과 한국의 복음주의를 중심으로」. 『담론201』 15, no. 2 (2012): 109-33.
- 김재훈. 「기독교인이 당당해야 나라가 삽니다」. 『국민일보』 2019.6.4.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69137>.
- 류성민. 「한국 종교인구 분포 비율의 변화와 그 특징」. 『종교연구』 56 (2009): 25-66.
- 목회사회학연구소. 「잃어버린 개신교인 200만을 찾아서」. 『뉴스앤조이』 2016.12.26. <https://www.newsnoj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86>.
-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세종):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8.
- 변상욱. 「개신교 증가의 이면상황을 직시하자」. 『개신교는 과연 약진했는가』 (2017): 23-26. http://www.tamgoo.kr/board/bbs/board.php?bo_table=b_resources_2_1&wr_id=6&page=3&wr_1.
- 박승길. 「한국 신종교 지형과 종교문화」. 『한국종교』 38 (2015): 95-131.
- 박재찬. 「세밑, 종로 5가에서」. 『국민일보』 2016.12.30.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9833>.
- 백상현. 「가짜뉴스, 혐오표현, 종교편향 논리로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성결교회와 신학』 40 (2018): 133-142.
- 소강석. 「패스트 팔로어를 넘어 퍼스트 무버로」. 『국민일보』 2017.1.10.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6009>.
- 서헌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교회와 법』 3, no. 1 (2016): 8.
- 신상목. 「성육신 VS 탈육신」. 『국민일보』 2016.12.23.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5639>.
- 양희승. 「사이 개신교와 강한 정체성의 딜레마」. 『개신교는 과연 약진했는가』 (2017): 27-31. http://www.tamgoo.kr/board/bbs/board.php?bo_table=b_resources_2_1&wr_id=6&page=3&wr_1.

- 육성삼. 「종교 통계에 감춰진 메시지」. 『국민일보』 2016.12.30.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9307>.
- 유광석.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종교분항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신학과 사회』 35, no. 2 (2021): 235-64.
- 이길용. 「세속화 시대의 한국교회」. 『활천』 763, no. 6 (2017): 36.
- 이지성. 「협오의 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 - 극우 개신교의 중복게이 혐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2 (2018): 211-240.
- 임성빈. 「종교인구 통계, 그 의미와 도전」. 『국민일보』 2017.6.8.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62052>.
- 임영빈. 「개신교 인구 증가, 어떻게 봐야 할까」. 『뉴스앤조이』 2016.12.26.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32>.
- _____. 「개신교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2017.1.2.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19>.
- 장형철. 「2005년과 2015년 인구 총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서 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인구 변동의 특징 - 연령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2, no. 1 (2018): 181-219.
- 정재영.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종교 인구 변동의 의미」. 『개신교는 과연 약진했는가』 (2017): 17-22. http://www.tamgoo.kr/board/bbs/board.php?bo_table=b_resources_2_1&wr_id=6&page=3&wr_1.
- 지영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가짜뉴스 - 2020.6.29.자 jtbc 팩트체크와 양심적 혐오표현권」. 『교회와 법』 7, no. 2 (2021): 169-225.
- 지용근. 「개신교, 리딩 종교의 시대를 맞으며」. 『국민일보』 2016.12.2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4732>.
- _____. 「종교 인구 조사 결과, 신뢰할 만한가?」. 『개신교는 과연 약진했는가』 (2017): 5-16. http://www.tamgoo.kr/board/bbs/board.php?bo_table=b_resources_2_1&wr_id=6&page=3&wr_1.
- 조종환. 「한국교회, 인구절벽에 맞닥뜨리다」. 『활천』 763, no. 6 (2017): 44-48.
- 최성훈. 「동성애에 대한 실천신학적 접근」. 『신학과 실천』 78 (2022): 763-86.
- 최현중. 「종교 인구에 대한 센서스 결과 분석」. 『신학과 실천』 24, no. 2 (2010): 371-97.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http://census.go.kr/dat/ysr/ysrList.do?q_menu=6&q_sub=3.

- _____.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2015. www.census.go.kr/dat/srd/srdList.do?pageIndex=2.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 「10년간 개신교인 100만 증가, 교회 부흥일까?」. 『뉴스앤조이』 2016.12.19.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43>.
-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와 천주교 교세」. 『가톨릭신문』 2017.1.13.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76487&acid=45.
-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발표…」. 『가톨릭평화신문』 2017.1.1. https://news.catholic.or.kr/WZ_NP/section/view.asp?tbcode=SEC01&cseq=2&seq=135147.
- 「국민 5명 중 1명 개신교인… 다음세대 부흥은 과제로」. 『국민일보』 2016.12.30.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9334>.
- 「2017 성결교회 성장 기상도 ‘맑은 뒤 흐림」. 『한국성결신문』 2017.5.25.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59>.
- 「가톨릭 교세폭발의 비밀」. 『월간조선』 2006.7.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607100010>.
- 「가톨릭 신자 감소, 이제라도 답 찾아야」. 『가톨릭평화신문』 2017.1.4. https://news.catholic.or.kr/WZ_NP/section/view.asp?tbcode=SEC05&cseq=2&seq=135303.
- 「개신교 인구 ‘967만’ 이 당황스럽다」. 『뉴스앤조이』 2017.2.7.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19>.
- 「개신교 ‘종교1위’ 에 현혹되지 마라」. 『뉴스앤조이』 2017.1.5.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45>.
- 「민주당 "일부 교회 중심으로 가짜뉴스 유포"」. 『뉴스앤조이』 2018.3.5.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04>.
- 「개신교 1위는 문항지 오류 바로잡은 결과」. 『국민일보』 2016.12.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3407>.
- 「‘국내 1대 종교’ 된 개신교, 힐링 코칭 프로그램 통했다」. 『국민일보』 2017.1.25.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5221>.
- 「군선교연합회 “개신교 1대 종교 등극, 군 선교 결실 확산”」. 『뉴스앤조이』 2017.2.23.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02>.
- 「교인절벽 맞기 전에, 교회, 영적 목마름에 답해야」. 『국민일보』 2016.12.20.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3481>.

- 「교인 17만명 감소, 13만이 예정합동」. 『뉴스앤조이』 2015.12.31.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96>.
- 「기독교군선교聯 성명 "123만 신자 증가 한국교회 군선교 사역의 결실"」. 『국민일보』 2017.3.4.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06366>.
- 「남탓하던 ‘불교신문’ 논조 바뀌」. 『불교닷컴』 2017.1.5.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88>.
- 「대한민국 ‘제1의 종교’ 된 개신교…10년간 120만명 이상 증가」. 『국민일보』 2016.12.19.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45071>.
- 「불교계 “조사방식 신뢰 어렵다”」. 『불교신문』 2016.12.2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86>.
- 「불자 감소… ‘조고각하’할 때다」. 『불교신문』 2017.1.3.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426>.
- 「신뢰, 호감도 제일 낮는데… 개신교도 놀라」. 『불교신문』 2016.12.2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91>.
- 「우리나라 전도 황금어장은 바로 여기」. 『국민일보』 2016.12.27.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61203>.
- 「유독 개신교만 대폭 증가?」. 『불교신문』 2016.12.2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85>.
- 「인구주택총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불교신문』 2016.12.2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93>.
- 「종교계, 종교인구 변화에 의아·충격·고심」. 『한국일보』 2017.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1081334251057>.
- 「종교 설자리 더 이상 없나… “위기를 기회로”」. 『불교신문』 2017.1.5.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498>.
- 「종교인구 조사 3대 쟁점」. 『국민일보』 2016.12.2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4349>.
- 「종교인구 통계조사 어떻게… 응답률 낮은 전수조사 대신 신뢰도 높은 표본조사」. 『국민일보』 2016.12.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2859>.
- 「주요 6개 교단, 올해만 교인 40만명 줄었다 … 10년 전 정점 찍은 후 176만명 빠져」. 『뉴스앤조이』 2021.10.7.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479>.

「한국교회 사상 첫 단일 연합기구 … 장로교·감리교·성결교·순복음·침례교 + 진보·보수 손잡아」. 『국민일보』 2016.12.29. <https://news.kmib.co.kr/view.asp?arcid=0923668479>.

「한국천주교회의 보다 정확한 기초 통계 산출을 위한 제언」. 『가톨릭신문』 2006.7.2.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156004&acid=1.

「한목협 “명실상부한 교회연합기구 출범돼야”」. 『국민일보』 2017.1.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72681>.

「타종교 교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교」. 『불교신문』 2017.1.4.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434>.

Badke, William. “Fake News, Confirmation Bias, the Search for Truth, and the Theology Student.” *Theological Librarianship* 11, no. 2 (2018): 4-7.

Crocker, Jennifer. “Biased questions in judgment of covariation stud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no. 2 (1982): 214-220.

Gilovich, Thomas. *How we know what isn't so*.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Klayman, Joshua, and Young-Won Ha. “Confirmation, Disconfirmation, and Information in Hypothesis Testing.” *Psychological Review* 94, no. 2 (1987): 211-28.

Lee, Ahlam. “Confirmation Bias and Irrational Decision-Making: Implications for HRD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South Korea*, 235-59.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20.

Lord, Charles G, Lee Ross, and Mark R Lepper. “Biased Assimil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Prior Theories on Subsequently Considered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no. 11 (1979): 2098-109.

Massey, Lesly F. “Confirmation Bias: An American Political, Religious, and Personal Dilemma.” *Pennsylvania Literary Journal* 13, no. 1 (2021): 121-342.

Nichols, Ryan. “Systematic Cognitive Bias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and Its Cultural Transmission.” *Journal of Cognitive Historiography* 5, no. 1-2 (2020): 56-86.

Pennycook, Gordon, James Allan Cheyne, Derek J Koehler, and Jonathan A Fugelsang. “Belief Bias during Reasoning among Religious Believers and Skeptics.”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20, no. 4 (2013): 806-11.

- Pohl, Rdiger. *Cognitive Illusions: A Handbook on Fallacies and Biases in Thinking, Judgement and Memory*.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2.
- Wason, Peter C. "On the failure to eliminate hypotheses in a conceptual task."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2, no. 3 (1960): 129-140.
- Yousaf, Omar, and Fernand Gobet. "The Effect of Personal Attitudes on Information Processing Biases in Religious Individuals." *Journal of Cognitive Psychology* 28, no. 3 (2016): 366-73.

Abstract

Interpreting Religious Population Statistics and Confirmation Bias:

A Case of Protestant Population Growth in the 2015 Population Census

Lee, Jungchan (Seoul National Univ.)

Statistics Korea released a report on religious demographics in 2015. While the number of believers from all other religions decreased, the Protestant population alone increased. Looking at the reaction of Protestantism at that time, while some welcomed the statistics, others doubted their reliabi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the reason why Protestants interpreted the same information differently. First,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interpreting statistical information is regarded as a cognitive process, an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onfirmation bias are described to analyze this. Second, the conflicting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same statistical data are also introduced. It seems tha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onfirmation bias are prominent in certain Protestants only. This phenomenon shows that psychological explanation can also be a tool for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Korean Protestants.

Keywords: Religious population statistics, Korean Protestants, conservative Protestantism, liberal Protestantism, confirmation bias,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